

## 완주군, 완주지회에 사료발효기 지원 예정

- 완주지회 임시총회 개최, 발효기 지원건 논의 및 회장 보선 -

완주지회(지회장 정원영)가 완주군으로부터 사슴전용사료발효기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주지회는 지난 4월16일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완주군의 양륙지원사업 일환인 사료발효기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보고를 실시하는 한편 완주지회장 보선을 실시했다.

취임 1년만에 완주지회장직을 자진 사임한 장갑선 전 지회장은 “완주군의 사슴전용사료발효기 지원사업은 지회 대표가 완주지역인이어야 함에 따라 전주 지역인 본인이 자진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 지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회장 보선을 위해 완주지회 회원들은 임시의장에 이철수씨를 선임하고 보선을 실시했다.



이철수 임시의장은 보선에 앞서 “지방 자치의 시대적 명분으로 완주군측이 지회 대표자를 관내거주자로 권장해 옴에 따라 부득이 오늘 보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완주지회를 사랑하는 충정으로 3년의 임기중 2년을 과감히 접은 장갑선 전 지회장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선 결과 본회 중앙회 이사로도 활동중인 정원영씨가 신임지회장에 선출됐다.

정원영 신임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지회운영을 통해 최고의 지회로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사 후 정원영 지회장은 사슴전용사료발효기 지원사업 경과보고를 실시했다.

정지회장은 “군수로부터 직접 사슴전용사료발효기 지원을 약속 받았으며 담당 실무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사료발효기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좋은 제품을 선정, 지회회원들 모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가 끝난 후에는 정원영지회장과 몇몇 지회 회원들이 지역 사료공장을 방문, 사료 제조 방법 및 사료제조기 등을 견학하는 시간을 갖았다. **안국양륙**